꽤 오랜만에 먹어보는 불닭볶음면 신제품이 나와서 먹어보았다 승우아부지는 맵찔이라 왠지 이거 리뷰 안 했을 것 같음 아님 말고



모짜델라치즈, 체다치즈, 까망베르치즈, 고다치즈 총 네 가지 치즈가 들어갔나보다



나트륨 폭탄...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다든 라면보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느낌



후첨 4치즈분말과 후첨 액상소스는 이렇게 생겼다



라면 봉지 뒷면에 쓰여있는 대로 끓는 물 600ml에 면을 넣고 5분 30초간 끓여주었다 물을 6스푼 남기고 따라버린 후 후첨 액상소스와 후첨 4치즈분말을 넣고 잘 비벼먹으라고 하는데 물을 6스푼 남긴다는 게 참 애매한 말이다 생각하는 찰나 그럼 그냥 애초에 물을 6스푼 떠서 따로 놓고 나머지를 버리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



사진 출처

왜 이런 발상을 태어나서 처음 한 것일까 덕분에 편안하게 조리할 수 있었다

처음에 양념에서 과자 냄새 같은 것이 나서 군것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맛은 과자 맛도 안 나고 문제 없었다

맵기는 딱 불닭볶음면 정도인 느낌 근데 내가 매운 걸 잘 먹는 편이기도 하고 불닭볶음면을 오랜만에 먹은 지라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닌 듯

치즈 맛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뭔가 아쉬워서 치즈 한 장에 달걀 프라이 하나 섞어 먹었다